

간호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박현숙¹ · 한지영²

¹경일대학교 간호학과 · ²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접수 2015년 3월 7일, 수정 2015년 3월 18일, 게재확정 2015년 4월 13일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두 개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간호학과 3, 4학년에 재학 중인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실습학기 ($\beta=.223, t=3.534, p=.001$), 전공만족 ($\beta=.257, t=3.962, p < .001$), 비판적 사고성향 ($\beta=.217, t=3.118, p=.002$), 셀프리더십 ($\beta=.169, t=2.260, p=.025$)이었으며 3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19.145, p < .001$).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건강상태 ($\beta=-.133, t=-1.937, p=.054$), 비판적 사고성향 ($\beta=.316, t=2.551, p=.012$), 셀프리더십 ($\beta=.323, t=4.181, p < .001$)이었으며 2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10.948, p < .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간호학생,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이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 습득은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임상실습을 통해 진행되는 데,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 가치관과 태도,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하게 한다 (Han, 2000). 또한 간호사로서의 임상적 역량과 자신감은 실제 상황에서의 성공적 경험이 축적될 때 획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Nam 등, 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 (Barrett와 Myrick, 1998).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능력, 지도력, 자료수집능력, 기본간호능력, 교육능력,

¹ (712-70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 교신저자: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mail: hanjy@silla.ac.kr

간호 관리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Kwon, 2011; Park, 2011).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 성과지표이며 졸업후 간호사로서의 실무를 접하면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수준을 평가받게 되는 중요요인이기도 하다 (Park 등, 20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하여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Koo와 Im, 2013).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졸업 후 바로 간호사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전문직 간호사로 발전해 나가는 데 가장 핵심요소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Yang과 Moon, 2011).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Neck 등, 1995). 셀프리더십은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고무되어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는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며 업무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Manz와 Sims, 1991; Kang 등, 2010).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해 줌으로써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며 (Yang과 Moon, 2011),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Do와 Seo, 2014).

임상실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전략으로는 비판적 사고를 들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이용하려는 인지과정을 의미한다 (Facione 등, 1994). 따라서 빠르게 변화되는 보건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적용하고 분석, 종합, 추론하며 의사결정시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Kwon 등, 2006). 또한 비판적 사고능력은 간호교육 성과의 중요지표이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비판적 사고성향이다 (Cho, 2005; Shin과 Cho, 2012).

간호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간호학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만족도 (Yang과 Moon, 2011),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Cho, 2005; Kim 등, 2011; Kwon, 2011),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Sung, 2010; Jung, 2012)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간호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2)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IRB File No : 1041449-201408-HR-002), 두 개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편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하며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수는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였을 때 Multiple regression을 위한 표본수는 유의수준 (α) 5%, 검정력 ($1-\beta$) 90%, 효과크기 (f^2) 0.15 (중간크기), 예측변수 11개에서 152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4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설문조사에 의해 무기명식으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서면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현지에게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지를 다 작성하는 데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총 204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202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하고 199부 (97.5%)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1) 셀프리더십 (Self 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일체 (Manz와 Sims, 1991)를 말한다. 셀프리더십은 Manz (1983)가 개발하여 Kim (2002)이 수정·보완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구성은 도전의 극복과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자기 기대' 3문항,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미리 연습하는 태도인 '리허설' 3문항, 목표를 설정한 후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목표설정' 3문항,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보상과 추상적인 무형의 보상인 '자기보상' 3문항,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자기징계인 '자기비판' 3문항,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패턴을 의미하는 '건설적사고' 3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Cronbach's alpha)=.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 알파=.79로 나타났다.

2) 비판적 사고성향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습관으로 (Shin 등, 2005),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Park (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으로는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7문항, 지적 정직 6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Likert)식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73이었으며, 연구의 크론바 알파=.71로 나타났다.

3) 임상실습만족도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 (Han, 2000), Cho와 Kang (1984)이 개발하고 Lee 등 (2004)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총 3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Lee 등 (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91로 나타났다.

4) 임상수행능력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Lee 등(1990)이 개발하고 Choi (2005)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5개 영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Likert)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파=.95 (간호과정 .85, 간호기술 .85, 교육/협력관계 .87, 대인관계/의사소통 .80, 전문직 발전 .82)이었다.

2.4. 자료 분석 및 검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구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 값을 구하였다.
- 대상자가 인지하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세가 79명 (39.7%)으로 가장 높았으며 22세가 56명 (28.1%)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185명 (93.0%), 남학생이 14명 (7.0%)을 차지하였다. 임상실습 학기별로는 2학기가 126명 (63.3%)이었고 4학기가 73명 (36.7%)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143명 (71.9%)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좋다가 128명 (64.3%), 보통이다가 71명 (35.7%)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없다가 117명 (58.7%)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서는 취직이

잘 되어서가 93명 (46.7%)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82명 (41.2%), 보통이다가 75명(37.7%)으로 나타났다 (Table 3.1).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r)	20	29 (14.6)
	21	79 (39.7)
	22	56 (28.1)
	≥23	35 (17.6)
Gender	Female	185 (93.0)
	Male	14 (7.0)
Clinical experience (term)	2	126 (63.3)
	4	73 (36.7)
Health status	Unhealthy	2 (1.0)
	Average	54 (27.1)
	Healthy	143 (71.9)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
	Average	71 (35.7)
	Good	128 (64.3)
Religion	Protestant	26 (13.1)
	Buddhist	31 (15.6)
	Catholic	25 (12.6)
	None	117 (58.7)
Motivation on choice nursing	Employment guarantee	93 (46.7)
	Correspond to score	12 (6.0)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36 (18.1)
	Service mind	22 (11.0)
	etc.	36 (18.1)
Satisfaction of major	Very unsatisfied	-
	Unsatisfied	16 (8.0)
	Average	75 (37.7)
	Satisfied	82 (41.2)
	Very satisfied	26 (13.1)

3.2.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64 \pm .36$ 점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3.26 \pm .26$ 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0 \pm .43$,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55 \pm .45$ 로 나타났다 (Table 3.2).

Table 3.2 Mean scores for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Variables	M±SD	Max	Min	Range
Self-leadership	3.64±.36	4.44	2.61	1-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26±.26	3.89	2.55	1-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50±.43	4.58	2.39	1-5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3.55±.45	4.84	2.51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Table 3.3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연령, 성별 및 임상학기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상태 ($F=3.404$, $p=.035$), 대인관계 ($t=4.991$, $p < .001$), 종교 ($F=3.471$, $p=.017$), 간호학 선택 동기 ($F=3.344$, $p=.011$) 및 전공만족도 ($F=5.036$,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 종교 및 간호학 선택 동기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불만', '보통'인 집단보다 '매우 만족'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연령, 성별, 임상학기, 건강상태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 ($F=2.766, p=.043$), 간호학 선택 동기 ($F=3.165, p=.015$) 및 전공만족도 ($F=3.682,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보통’인 집단보다 ‘매우 만족’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연령, 성별, 종교 및 간호학 선택 동기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학기 ($t=3.514, p=.001$), 건강상태 ($F=7.216, p=.001$), 대인관계 ($t=2.235, p=.027$) 및 전공만족도 ($F=11.986,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학기에서 2학기보다 4학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에서 ‘보통’인 집단보다 ‘좋은 편’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건강상태,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인 집단보다 ‘만족’과 ‘매우 만족’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연령, 성별, 임상학기, 종교 및 간호학 선택 동기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상태 ($F=3.970, p=.020$), 대인관계 ($t=2.081, p=.039$) 및 전공만족도 ($F=4.678,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에서 ‘보통’인 집단보다 ‘좋은 편’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건강상태,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인 집단보다 ‘만족’과 ‘매우 만족’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3.3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Age (yr)	20	3.57±.38	.927	3.28±.28	.294	3.57±.49	.754	3.46±.56	.605
	21	3.62±.39	(.429)	3.25±.27	(.830)	3.50±.44	(.521)	3.59±.45	(.612)
	22	3.65±.30		3.25±.25		3.43±.40		3.54±.36	
	≥23	3.71±.35		3.29±.25		3.54±.39		3.56±.44	
Gender	Female	3.62±.36	1.697	3.26±.26	1.665	3.49±.43	1.048	3.54±.44	.956
	Male	3.79±.31	(.091)	3.38±.19	(.098)	3.62±.35	(.296)	3.66±.47	(.340)
Clinical experience (term)	2	3.61±.38	1.423	3.25±.23	.666	3.36±.40	3.514	3.51±.37	.884
	4	3.68±.31	(.156)	3.27±.28	(.506)	3.58±.43	(.001)	3.57±.49	(.378)
Health status	Unhealthy	3.89±.16	3.404	3.53±.04	1.899	3.24±.30	7.216	3.29±.09	3.970
	Average	3.53±.41	(.035)	3.22±.25	(.153)	3.32±.37	(.001)	3.41±.43	(.020)
	Healthy	3.67±.33		3.28±.26		3.57±.43		3.60±.44	
	Average	3.47±.38	4.991	3.22±.29	1.613	3.41±.41	2.235	3.46±.45	2.081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73±.31	(.000)	3.29±.24	(.108)	3.55±.43	(.027)	3.60±.44	(.039)
	Protestant	3.70±.37	3.471	3.19±.23	2.766	3.46±.50	1.542	3.54±.38	1.617
Religion	Buddhist	3.71±.38	(.017)	3.37±.21	(.043)	3.52±.42	(.205)	3.62±.54	(.187)
	Catholic	3.79±.26		3.32±.25		3.69±.36		3.72±.40	
	None	3.57±.36		3.24±.27		3.48±.42		3.51±.43	
Motivation on choice nursing	Employment guarantee	3.64±.35	3.344	3.26±.24	3.165	3.48±.46	1.147	3.55±.46	.598
	Correspond to score	3.60±.28	(.011)	3.21±.25	(.015)	3.51±.51	(.336)	3.59±.44	(.664)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3.46±.41		3.15±.30		3.41±.34		3.47±.40	
	Service mind etc.	3.78±.31		3.34±.29		3.64±.45		3.66±.42	
Satisfaction of major	Unsatisfied ^a	3.53±.51	5.036	3.24±.32	3.682	3.08±.27	11.986	3.27±.46	4.678
	Average ^b	3.55±.37	(.002)	3.22±.23	(.013)	3.41±.35	(<.001)	3.50±.46	(.004)
	Satisfied ^c	3.67±.32		3.26±.28		3.59±.45		3.59±.40	
	Very satisfied ^d	3.84±.21	a,b<d	3.41±.17	b<d	3.76±.40	a<b, c<c,d	3.75±.43	a<c,d

^{a,b,c} Scheffe test (same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ce)

3.4.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셀프리더십 ($r=.332, p < .001$)과 비판적 사고성향 ($r=.366, p < .001$)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r=.476, p < .001$). 셀프리더십 ($r=.442, p < .001$)과 비판적 사고성향 ($r=.361, p < .001$)은 임상수행능력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가장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r=.545, p < .001$) (Table 3.4).

Table 3.4 Correlation among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199)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Self-leadership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76***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32***	.366***	1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442***	.361***	.545***	1

*** $p < .001$

3.5.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5와 같다.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임상학기,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을 독립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654~0.917로 0.1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91~1.530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2.077으로 2에 가까워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적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4.840$, $p < .001$), 30.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실습학기 ($\beta=.223$, $t=3.534$, $p=.001$), 전공만족 ($\beta=.257$, $t=3.962$, $p < .001$), 비판적 사고성향 ($\beta=.217$, $t=3.118$, $p=.002$), 셀프리더십 ($\beta=.169$, $t=2.260$, $p=.025$)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을 독립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673~0.870로 0.1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도 1.149~1.485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765으로 2에 가까워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적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2.799$, $p < .001$), 23.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건강상태 ($\beta=-.125$, $t=-1.937$, $p=.054$), 비판적 사고성향 ($\beta=.316$, $t=2.551$, $p=.012$), 셀프리더십 ($\beta=.399$, $t=4.181$, $p < .001$)으로 나타났다.

Table 3.5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199)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IF
	β	S.E	Beta			
(Constant)	1.535	.397		3.868	<.001	
Clinical experience (term)	.099	.028	.223	3.534	.001	1.091
Health status	-.103	.061	-.114	-1.694	.092	1.22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8	.061	-.009	-.128	.898	1.240
Satisfaction of major	.133	.034	.257	3.962	<.001	1.153
Self-leadership	.202	.089	.169	2.260	.025	1.53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8	.115	.217	3.118	.002	1.327
$R^2 = .326$, Adj $R^2 = .304$, $F=14.840$ (<.001), Durbin-Watson=2.077						
(Constant)	.973	.426		2.282	.024	
Health status	-.124	.064	-.133	-1.937	.054	1.1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038	.066	.040	.571	.569	1.235
Satisfaction of major	.057	.037	.105	1.552	.122	1.149
Self-leadership	.399	.096	.323	4.181	<.001	1.48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16	.124	.185	2.551	.012	1.308
$R^2 = .257$, Adj $R^2 = .237$, $F=12.799$ (<.001), Durbin-Watson=1.783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간호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과 Moon (2011)의 3.72점/5점과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Cho (2012)의 3.74점/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건강상태, 대인관계,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상태, 종교 및 간호학 선택 동기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Lee와 Cho, 2012; Yang과 Moon, 2011),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는 훈련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이었으며, 연구도구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 (2012)의 3.44점/5점, Kim 등 (2011)의 3.60점/5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성별, 임상학기, 건강상태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 간호학 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Lee와 Lee (200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간호학 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낸 Kim 등(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선택 동기가 봉사직을 갖기 위한 경우가 성적이나 주위의 권유로 진학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에 있어서 선택 동기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평균이상이었으며, 이는 Lee 등 (2004), Kwon과 Kwag (2012)과 Yang과 Moon (2011)의 연구결과보다 높으며 Jung (2012)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상실습의 교육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임상학기,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 (Jung, 2012; Lee와 Lee, 2006, Yang과 Moon, 2011)와 유사하였다. 임상학기가 2학기 보다 4학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은 임상학기를 진행할수록 반복적인 실습경험을 통한 자신감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감소시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리라 사료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으므로 나타나 이론 교육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Yang과 Moon, 2011).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3.49점/5점인 Kim 등 (2011)의 연구결과나 3.26점/5점인 Kwon과 Kwag (2012)보다 높으며, 3.77점/5점인 Jung (2012)의 연구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은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의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습 전부터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모두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Yang과 Moon (2011)의 결과와 일치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Park과 Kim (2013)의 연구결과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 임상수행능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Kwon과 Kwag (2012)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복잡한 간호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셀프리더십을 함양이 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Park과 Kim, 2013; Shin 등, 2005).

회귀분석을 통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실습학기, 전공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본 Yang과 Moon (2011)의 연구에서 학년, 셀프리더십, 대인관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셀프리더십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비판적 사고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건강상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본 Park과 Kim (2013)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Do와 Seo (2014)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그리고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본 Park 등 (2012)의 연구에서 리더십, 학년과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유능한 셀프리더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획득 가능한 것이므로 (Manz와 Sims, 1991), 현실적으로 전공이수체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hoi 등, 2013).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법과 교수법을 설계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고 타 과에 비해 학과공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많은 시간을 학업에 소요하고 있어 수면, 식사 및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를 적절히 하지 못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관리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Yang과 Moon, 2013).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증가되었으며,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에서 적절한 건강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호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개 도시의 2개 4년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임상

수행능력의 경우 자가보고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의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실습학기, 전공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었으며 3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14.840, p < .001$).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건강상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었으며 2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12.799, p < .001$).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교육성과 지표들을 포함한 통합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rrett, C. and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364-371.
- Cho, H. S.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222-231.
- Cho, G. J. and Kang, H. S. (1984). Th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 63-74.
- Choi, H. S., Kim, S. G. and Ha, J. (2013).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sharing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1177-1188.
- Choi, M.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Do, E. S. and Seo, Y. S. (201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 283-291.
- Facione, N. C., Facione, P. A. and Sanchez, C. A.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 345-350.
- Han, S. J.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 132-146.
- Jung, J. S. (2012).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 53-61.
- Kang, Y. S., Choi, Y. J., Park, D. L. and Kim, I. J. (2010).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143-151.
- Kim, H.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I. S., Jang, Y. K., Park, S. H. and Song, S. H.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339-347.
- Koo, H. Y. and Im, H. S. (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 311-321.
-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Sohn, S. K., Lee, W. S. Jang, K. S. and Chung, B. Y.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950-958.

- Kwon, M. S. (2011).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389-396.
- Kwon, Y. H. and Kwag, O. G. (2012).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 4572-4581.
- Lee, J. D. and Lee, C. S. (2006). The effect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 434-443.
- Lee, J. Y. and Cho, M. H. (2012).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High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0**, 241-253.
- Lee, S. H., Kim, S. Y. and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 219-231.
- Lee, W. H., Kim, C. J., Yoo, J. S., Hur, H. K., Kim, K. S. and Lim, S. M. (1990).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s. *Yonsei Journal of Nursing Science*, **13**, 17-29.
-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 Hall, New Jersey.
- Manz, C. C. and Smis, H. P.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 18-35.
- Nam, H. S., Son, K. A., Kim, S. H., Song, Y. S., Kwon, S. H. and Oh, E. H. (2014). The effects of online nursing education contents on self efficacy,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1353-1360.
- Neck, C. P., Stewart, G. W. and Manz, C. C. (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3**, 278-302.
- Park, J. H. (2011).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74-87.
- Park, J. W., Kim, C. J., Kim, Y. S., Yoo, M. S., Yoo, H., Chae, S. M. and Ahn, J. A. (2012).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 223-231.
- Park, S. H. (1999).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 93-112.
- Park, I. S. and Kim, R. (201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 105-117.
- Shin, K. R., Ha, J. Y. and Kim, K. H.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35**, 382-389.
- Shin, K. A. and Cho, B. H.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 46-56.
- Sung, M. H. (2010).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 90-98.
- Yang, N. Y. and Moon, S. Y.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216-225.
- Yang, N. Y. and Moon, S. Y.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 33-42.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Hyeon-Sook Park¹ · Ji-Young Han²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Received 7 March 2015, revised 18 March 2015, accepted 13 April 20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199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3rd and 4th grades) in 2 cities.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among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0.4%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ere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of major,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3.7% of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Health status,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t should strengthen self-leadership and encoura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Keywords: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leadership.

¹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Gyeongbuk 712-701,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E-mail: hanjy@silla.ac.kr